

## 간흡충·요충 등 감염률, 일부 지역·계층서 아직 높아

제 6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 결과  
앞으로 감염 유행지역·계층 집중 관리 필요  
전체 총란양성률은 2.4%, 우수한 기생충관리 성과로 평가

**기**생충 질환은, 1960년 대 이후 우리 나라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국가적 관리체계를 통해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전염성 질환 중의 하나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기생충 질환이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원 하에, 1969년 초·중·고 학생 대상의 집단 기생충 검사 및 구충(驅蟲)사업을 전개하면서 부터였다.

이처럼 효율적인 기생충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생충 감염의 장기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할 필요성을 인식한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1971년 제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로 여섯 번째 실시된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는 전국 규모의 정기 표본조사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나라가 유일하게 실시해 온 조사사업이다.

그동안 내무부·공보처·통계청·기생충학회 등의 협조 하에 전국 인구에서 추출한 표본 인구에 대한 총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생충별·성별·연령별·지역별·주거형태별·소득별 등으로 구분 파악해 온 본 실태조사의 결과는, 국가 보건 지표로 활용되는 한편 보건 정책 수립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기생충 관리, 특히 토양매개성 기생충관리의 성공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기록해 오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동남아 지역 등 해외 기생충 관리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지난 해 실시된 제 6차 실태조사는, 1992년 5차 실태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비와 같이 우리 나라 기생충 감염이 이제 선진국 유형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총 203개 단위조사구에서

15,273가구의 45,8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체 총란 양성률은 2.4%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충·구충·편충 등 기생충의 대명사처럼 불리워졌던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특정 연령 계층에서 간흡충·요충과와흡충·요충 등의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체 총란 양성률은 2.4%로, 1차 조사 때인 1971년의 84.3%, 1976년(2차) 63.2%, 1981년(3차) 41.1%, 1986년(4차) 12.9%, 1992년(5차) 3.8%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염률을 나타내어 그간의 기생충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회충 0.06%, 구충 0.007%, 편충 0.04%, 동



양모양선충 0% 등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총란 양성률은 과거 10~60% 이상을 차지하던 감염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거나 감염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간흡충·요코가와흡충·요충 등의 총란양성률이다.

즉 요충의 경우 평균 총란 양성률은 0.6%로 낮았으나, 5~9세 아동에서 3.7%의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고, 0~4세군에서 1.4%, 10~14세군에서 1.1%로 나타났다. 요충 검사는 대변검사와 별개로 실시한 항문주위도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총란 양성률로 보면 간흡충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전국에 최소한 27만여명의 양성자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흡충은 평균 총란 양성률이 1.4%로 다른 기생충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감염률을 기록했고, 간흡충 중간숙주가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를

중심으로 유행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 64만 6천 여명의 간흡충 총란 양성자가 국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낙동강 주변 지역에 표본 조사가 많았던 부산이 5.9%로 가장 높은 총란 양성률을 기록했고, 광주와 경북 3.1%, 전남 2.4%, 서울 0.1%, 강원 0.07% 등 지역간 격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는 55~59세군이 3.0%, 45~49세군 2.8%, 50~54세군 2.5%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그중에서도 45~49세 남자군 4.2%, 55~59세 남자군 4.1%로 민물고기를 즐겨 먹는 성인남자군에서 높은 감염률을 나타냈다.

한편 요코가와 흡충의 경우 평균 총란양성률이 0.3%로 나타났는데 광주와 전남에서 1.5%의 총란 양성률을 나타내 타 지역이나 기생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률을 나타냈다.

이외에, 사회학적 요인에 의한 총란 양성률을 분석한 결과,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월수입별로는 4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식습관별로는 날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학력별로는 미취학 혹은 중졸미만자가, 직업별로는 입법자·고위임직원·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기생충 관리는, 지금까지와 같은 전국 규모의 정기적 표본조사 대신 전반적 기생충 감염 상황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소규모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히 간흡충·요코가와흡충·요충 등의 감염 유행지역을 대상으로 검사와 투약 등 집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1) 토양매개성 선충 대상의 조사자료를 소규모라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상황 변화를 감시하도록 한다.

2) 간흡충관리사업은 유행 지역 단위로 지방 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의 간흡충 유행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수행한다.

3) 요코가와 흡충을 위시한 장흡충은 아직도 신종이 발견되고 새로운 농후지역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유행 가능성이 있는 강 어귀와 섬을 중심으로 조사와 치료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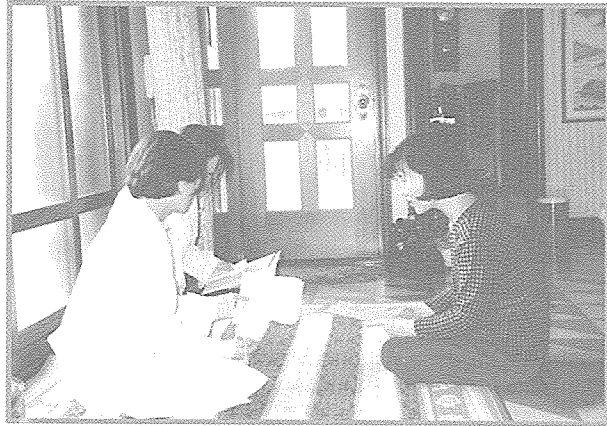
4) 어린이에서 유행하는  
요충의 관리를 위하여 미취  
학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  
년 어린이를 중심으로 검사  
와 투약 계획을 검토한다.

제 6차 실태조사는 예년과  
조금 다르게 정부의 용역사  
업 형태로 실시되다 보니 과  
거 2년에 걸쳐 실시하던 사  
업을 1년 안에 끝마쳐야 하  
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1997년 2월에 시작되어 불  
과 10여개월만에 가검물 수  
집부터 결과 공표까지 완벽  
한 조사가 진행되었던 제 6  
차 실태조사는, 우리 한국건  
강관리협회의 우수한 조직과  
인력, 풍부한 경험과 투철한  
사명감, 무엇이든 하고야 만  
다는 끈기가 있었기에 성공  
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계획수립부터 가검물 수  
집, 통계분석, 책자제작까  
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었던 일들……. 지난 1년  
을 되돌아보니 코끝이 찡해  
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하  
면서도 가장 힘든 일은 뭐니  
뭐니해도 가검물(대변) 수집  
이다. 내 똥도 더러운데, 남  
의 똥까지 달라고 밤낮으로  
쫓아다니며 걷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기생충 실태조  
사사업인 것이다.

기생충 검사에 대한 인식  
이 희박해진 요즘, 웬만한  
정성이 아니면 더럽고 귀찮  
고 냄새나는 변을 담아 주기  
란 쉽지 않다. 그런 주민들로  
부터 변을 받기 위해 우리 시



도지부 직원들은 수도 없이  
검사대상지역을 방문해야 했  
다. 어떤 직원은 열여덟차례  
나 찾아가, 결국 변을 받아내  
고야 말았다고 한다. 아마도  
그 주민은, 반쯤은 정성에 감  
복하고 반쯤은 질려버렸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웃지 못할 일은 또 있다.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 맞  
벌이하는 가정이 많아진 탓  
인지 낮에는 찾아가도 사람  
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요  
즈음이다. 그래서 이른 새벽  
이나 늦은 밤에 방문하기가  
다반사였다. 특히 늦은 밤에  
갔는데 주인이 없으면, 밖에  
서 서성거리며 사람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며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남이 보면 할 일 없는 사  
람 같기도 하고 도둑 같기도  
하고…….

결국 주민의 신고로 유치  
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직원  
도 있다. 다음날 아침 신분  
이 확인되고 국가적 사업을  
수행 중이라는 설명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고 난 뒤에  
야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며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한다.

시골에는 개조심 문패가  
아직도 많다. 그렇지만 왜  
개조심을 해야 하는지를 몰  
랐으니……. 변냄새가 신경  
을 건드렸을까? 아무 생각없  
이 드나들던 협회 여직원의  
예쁜 종아리를 그만 덤석 물  
어버렸다.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어  
야 했고 웃지 못할 추억거리  
(?)도 만들었던 6차 실태조사  
도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다.  
무엇보다 일선에서 갖은 어려  
움을 겪으며 밤낮으로 변수집  
을 다녀야 했던 시도지부 직  
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  
며, 조사사업이 훌륭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보건복지부·통계청·내무  
부·공보처·각 시도 보건  
소·동사무소·통·반·이장  
님들, 그리고 전문 학자님들  
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합  
심협력으로 얻어진 이 좋은  
결과가 우리 나라 뿐만 아니  
라 전 세계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  
지 않는다. 72